

<번역 논문>

<기쁜소식성경>(Good News Bible)의 1992년 개정과 그 배경

데이비드 G. 버크(David G. Burke)*

김동혁 번역**

1980년대 말, <기쁜소식성경>(Good News Bible = GNB)¹⁾ 신약이 1966년에 도입된 지 20년이 조금 지난 때에, 또한 1976년 신약과 구약을 모두 포함한 <기쁜소식성경>과 제2정경/외경판(1979년)이 나온 후 10년이 조금 지나서,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 ABS)의 이사회는 적절한 숙고 끝에 <기쁜소식성경> 본문 개정에 착수하는 작업을 승인했다. 이것은 <기쁜소식성경>의 영어가 언어 사용의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구식이 되어 간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진 데 대한 응답이었다. <기쁜소식성경>은 1966년 도입되자마자 미국을 비롯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이 본문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사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미심쩍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정이 꼭 필요해진 배경이 있었다.

(1) 개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배경의 첫 번째 측면은 성서 번역에 늘 영향을 끼치는 저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학문적, 언어적 기초와 관련하여 번역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미국성서공회 나이다연구소 명예 소장. dburke3350@aol.com. David G. Burke, "The 1992 Revision of the Good News Bible: The Context for Revision", *The Bible Translator* 69:3 (2018), 347-365.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donghyukk@gmail.com.

1) <기쁜소식성경>(Good News Bible)이라는 표제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출간된 197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이름을 소급하여 그 이전의 신약판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자 한다.

들을 너무나 빠르게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적 요소, 곧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로 쓰인 고대 필사본들의 발견과 해석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진전이다(예컨대, 사해 두루마리).

최근 개정된 <새미국성경> 2판(New American Bible² = NAB²)의 서문이, 성서 번역을 개정해야 하는 배경의 이 중요한 첫 번째 측면을 어찌면 가장 잘 서술해 준다.

이따금 기존 번역을 다시 번역하고 개정하는 일이 필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예컨대, 새 고대 필사본들과 더 나은 고대 필사본들의 발견 및 출간에 보조를 맞춰 가는 일은 중요하다 ... 그래야 최상의 본문 전승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 언어들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진전은 원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히 번역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수용 언어의 어휘와 문화적 배경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NAB², 서문, 3)

(2)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개정이 필요해진 배경의 두 번째 측면을 가리킨다. 즉, 수용 언어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발전과 변화인데, 이것이 <기쁜소식성경>의 영어 본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미 1970년대에 구어체 미국 영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성 배타적(gender-excluding) 표현을 피하려는 화법을 점점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의 변화였다(예컨대, ‘he or she’[그 남자와 그 여자], ‘his or hers’[그 남자의 것 또는 그 여자의 것], ‘s/he’[그 여/남자]). 처음에 많은 성서학자들(특히 보수적 진영에서)은 이 현상을 금세 지나갈 짧은 유행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1980년대에 와서 주요 성경 번역을 관리하거나 출간하는 이들이 볼 때, 구어체 영어의 이러한 변화가, 이 성경들의 남성 위주의 언어를 독자들/청자들에게 구식이자 부적절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 따라서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역시 명확해졌다.

다른 주요 성경 번역들도 1970년대, 혹은 늦어도 1980년대에는, 이러한 배경적 요소를 마주하였고, 성 배타적 언어와 관련하여 그들의 성경을 검토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이 점과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성경 번역 몇 개를 비교하는 것은 이 언어적 배경을 묘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예루살렘성경>(New Jerusalem Bible = NJB): <새예루살렘성경>(1985년)은 <기쁜소식성경> 2판보다 7년 앞서 출간되었다. <새예루살렘성경>은 <예루살렘성경>(Jerusalem Bible)의 개정작이었는데, 후자는 <기쁜소식성경> 신

약이 출간된 해(196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예루살렘성경>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번역의 번역”이라는 비판과 프랑스어 원문을 너무 충실하게 따른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따라서 <새예루살렘성경>을 위한 작업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한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 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성 배타적 언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예루살렘성경> 서문은, “남성형에 대한 내재적 선호를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NJB, 서문, 5).

<새개정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NRSV): 역시 1980년대에 마련된 <새개정표준역>(1989년)은 <개정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 RSV; 신약: 1946, 1971년; 구약: 1952년; 외경: 1957년)의 개정작이다. <새개정표준역> 번역 위원회들을 대표해서, 편집자인 메츠거(Bruce M. Metzger)도 같은 배경적 측면을 언급한다. 즉, 중요한 필사본들(특히 사해 두루마리와 초기 그리스어 필사본들)의 발견으로 본문 비평적 혹은 주석적 결정들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고, 성 배타적 언어의 문제로 영어를 최신화할 필요가 생겼다. 메츠거의 <새개정표준역> 서문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진술한다. “<개정표준역>이 출간된 후 거의 반세기가 지나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내재한 남성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언어적 성차별주의의 위험성에 민감해졌다. 성경의 경우 이 편향성은 자주 원문의 뜻을 제한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다”(NRSV, 서문, 3). 그리하여 번역을 위한 <새개정표준역>의 위임 사항은 위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즉, 본문의 의도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한 모든 곳에서,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구절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남성 지향적 언어는 제거되어야 한다. … 부자연스러운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NRSV, 서문, 3).

<개정영어성경>(Revised English Bible = REB): <개정영어성경>(1989년)도 1980년대에 준비되었는데, 영국에서 제작한 <새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신약: 1961년; 전서: 1970년)을 최신화한 것이다. <개정영어성경>은 <새영어성경>의 모험적인 본문적 결정의 다수를 되돌린 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 편향과 관련하여, <개정영어성경>의 개정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명확한 구절들에서 전통적인 성서 역본들이 남성 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최근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학문

적 진실성이나 영어 문제와 관련하여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수정이 가능한 곳에서, 개정자들은 보다 성 포괄적인 지칭을 선호했다”(REB, 서문, ix).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Translation = NJPS):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1985년) 또는 <타낙>(Tanakh)은,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유대교출판협회(Jewish Publication Society) 1917년판을 개정한 것으로 흔히 여겨진다. 그러나 실은, 몇몇이 선호한바 적절한 수준의 개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번역”에 착수하기로 한 결정이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내려졌다(NJPS, 서문, xxiii). 또 1917년의 유대교출판협회 번역의 영어는 그냥 개정만 하기에는 <제임스왕역>(King James Version)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의 편집장으로 일했고 <새개정표준역> 구약 팀에서도 일한 올린스키(Harry M. Orlinsky) 교수는 1991년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오늘날 남성 지향적 … 언어로 불리게 된 사안은 이미 50년대와 60년대에 <새유대교역>(New Jewish Version)에서 그 새 번역 철학의 한 측면으로서 다루어졌다. … 그러나 이 문제는 70년대 초 미국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었으므로, 결국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의 주요한 혁신 사항을 구성하는 데에까지 이른 것이다.”²⁾

<새미국성경> 2판(New American Bible² = NAB²): <새미국성경> 2판(2010년)은 모든 주요 영어 성경 역본 중 가장 근래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새미국성경>(New American Bible)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새미국성경>은 1970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 바로 이 70년대가 영어의 구어체 양식이 변하기 시작할 때였다.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새미국성경> 2판에 관하여 언급할 때 살펴보았듯, 번역자들은 “새 고대 필사본들과 더 나은 고대 필사본들의 발견 및 출간”, 성서 언어학의 진전, “수용 언어의 어휘와 문화적 배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 가는 데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개정에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본문이 말하는 바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그리스어의 뜻이 양성을 모두 포함할 때에 번역은, 일반적인 영어 용법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포괄성을 재현하고자 한다. … 영어에서 ‘man’(남자, 사람)이 전통적으로 통칭적인 의미를 띠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를 거부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법은 일반적으로 피했다. … 영어는 성 포괄적인 삼인칭 단수 대명사가 없으므로 … 본 번역은 ‘everyone’(모든 이)이나 ‘anyone’(아무도, 누구나)을 받을 때 전통적인

2) Harry M. Orlinsky and Robert G. Bratcher,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nd the North American Contribution* (Atlanta: Scholars Press, 1991), xv.

방식대로 남성 대명사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뜻에 대한 충실성을 포기하지 않고서 이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NAB², 서문, 1061)

<새생명번역>(New Living Translation = NLT): 복음주의적 성서 출판사들조차도 개정의 필요성을 마주해야 했다. <새생명번역>(1996년)은 테일러(Kenneth Taylor)의 <풀어쓴생명성경>(Living Bible Paraphrased, 1971년)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1901년에 나온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의 어색한 문자적 영어를 고쳤을 뿐인) <풀어쓴생명성경>과는 달리, <새생명번역> 프로젝트는 복음주의적 성서학자들의 팀에 맡겨질 때에 원어 본문에서 새로이 번역하라는 위임 사항이 더해졌다. <풀어쓴생명성경>과는 달리 <새생명번역>은 순수한 번역이고, <풀어쓴생명성경>에 대한 주된 비판을 해결한 출판사 틴들(Tyndale)의 영리한 마케팅 전략을 보여준다. 즉, <새생명번역>은 원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했고, 또한 성 배타적 언어의 사안을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다른 복음주의적 출판사들보다 한발 앞설 수 있었던 것이다. <새생명번역>의 번역 위원회는 그들의 작업이, “고대라는 맥락의 성격을 존중하는 동시에, 번역이 현대 청중 — 남성 지향적 언어는 남성에게만 적용된다고 읽는 경향을 가진 — 에게 명확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선언했다. 반면, 원어 본문에서 남성 명사와 남성 대명사가 사용될 때는 “메시지가 남자와 여자들에게 모두 적용됨을 의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NLT, 서문, xviii).

<오늘의새국제역>(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 TNIV, 2005년): 국제성서공회(International Bible Society = IBS)는 <새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 NIV, 1973년)의 개정작을 다루는 일을 오랫동안 피했다. 무엇보다 이 성 배타적 언어라는 사안이 많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논란이 컸기 때문이었다. 1997년 봄, 국제성서공회는 영국에 한해서 <새국제역>을 새로 개정한 성 포괄적 판을 공개했는데, 처음에는 <새국제역성포괄적언어판>(New International Version Inclusive Language Edition)으로 불렀다. 그러나 즉시 미국 내 초(超)보수적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 ‘몰래 성경’(stealth Bible)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새국제역>을 함부로 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국제성서공회에 대한 혹독한 비판 중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내 <새국제역>에서 손을 떼라”(“Hands Off My NIV”), “‘몰래 성경’에서 벗어나기”(“Bailing Out of the Stealth Bible”), “성경을 다시 쓰라는 여성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Don't Give in to Feminist Pressure to Re-write the Bible”).³⁾ 국제성서공회는 강력하고 맹렬한 압력에 곧 항복했고 미국 내에서는 <새국제역>을 같은 방식으로 개정해서

배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항구적이지 못했다. 5년 뒤, 그 모든 적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성서공회는 보도 자료를 내어 그들이 <새국제역>의 ‘성과 관련해 정확한’(gender-accurate) 판을 <오늘의새국제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출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보도 자료는 또한 <오늘의새국제역>이 <새국제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⁴⁾ <오늘의새국제역> 개정자들은 이 개정을 성서학 및 영어 용법의 변화 — 특히 성 배타적 화법을 멀리하려는 움직임 — 에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는 <새국제역>의 위임 사항에서 비롯된 필수적 최선화로 보았다.

<기쁜소식성경>의 1992년 개정: <기쁜소식성경> 2판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개정들이 이뤄진 배경을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왜 1976년 <기쁜소식성경> 본문이 처음 출간된 직후부터 그것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다른 주요 성경 번역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제기된 몇몇 본문적/주석적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기도 했지만,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성 배타적 언어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다.

<기쁜소식성경> 2판: <기쁜소식성경>의 온전한 ‘개신교판’은 1976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기쁜소식성경> 신약이 1966년 처음 출간된 때부터 신구약 전서가 1976년 출간된 때까지 신약 본문이 (새로 인쇄할 때의 편집 교정은 제외하고서도) 이미 세 번 개정된 것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다. 신약 2판은 1967년 10월에 소개되었는데, 학문적 진전, 논평, 제안 —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명확성과 충실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 — 에 비추어 본문적 조정과 문체적 조정을 모두 아울렀다. 신약 3판(1971년)은 본문적 개선의 강화라는 같은 기준을 따랐고, 신약 4판(1976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이 <기쁜소식성경>의 첫 구/신약판(1976년)에 포함된 신약 본문이었다. 신약 4판은 중요한 진전과 조정을 보여 주었다. 신약의 그 이전 판들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 UBS])의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Greek New Testament)의 1판(1966년)과 2판(1968년)에 기초했는데, <기쁜소

3) Doug LeBlanc, “Hands Off My NIV”, *Christianity Today* 41:7 (1997), 52-53, 55; Susan Olasky, “Bailing Out of the Stealth Bible”, *World* 12:10 (1997), 1-7; James Dobson, “Don’t Give In to Feminist Pressure to Re-write the Scriptures”, *World* 12:7 (1997), 1.

4) International Bible Society, “Top-selling Bible to Be Issued in Gender-Accurate Version”, *IBS Web-Bulletin* (2002. 1. 28.), 1-2.

식성경> 신약 4판은 1975년에 나온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서』 3판의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진전을 반영하도록 편집된 것이다.⁵⁾ 이 개선된 신약 본문이 1976년판으로 옮겨졌다.

중요한 진전들이 1976년판에서 일어났다. 하나는 본문에 대한 주석이 같은 페이지에 각주로 도입된 것이다. 신약 1판과 2판은 각주가 없었는데, 번역문의 독자가 일반적으로 각주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쁜소식성경>에 가해진 정당한 비판이 두 가지 있었는데, 본문적 난제가 있는 곳에서 본문적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선택지들을 지지하는 본문적 근거가 고대 필사본들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미국성서공회의 개정자들은 신약 3판에서 이에 응답하였다. 신약 3판에 “다른 독법과 번역”이라는 제목의 네 쪽짜리 부록을 추가하여 주요 이독 및 다른 가능한 번역 대안을 열거한 것이다(GNB 신약, 3판, 643-646). 또 <기쁜소식성경> 신약 3판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고대 그리스어 필사본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 구절들을 신약 본문 속에서 꺾쇠괄호 안에 둬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신약 4판에서 그러한 구절들은 “몇몇 필사본은 다음의 말을 덧붙인다.”라는 도입문과 함께 모두 각주로 옮겨졌다(예컨대, 막 7:6; 행 8:37; 요 8:1-11).

<기쁜소식성경> 신약 3판에서 이미 용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정이 몇 가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1976년 <기쁜소식성경>에도 이어졌다. 한 예가 그리스어 단어 ‘쉬나고게(συναγωγή, ‘회당’)’다.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은 이 그리스어 용어를 ‘meeting house’(회합의 집)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그리스어 단어의 기능적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meeting house’가 독자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말했다. <기쁜소식성경> 신약 3판에서 이 단어는 ‘synagogue’(회당)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meeting house’라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부록의 용어 목록(GNB 신약, 3판, 629-642)에서 ‘synagogue’는 “유대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해 안식일마다 모인 장소. 주중에는 사교의 장소나 학교로 쓰이기도 함”으로 정의된다(GNB 신약, 3판, 640).

이미 <기쁜소식성경> 신약 4판에서 주목할 만한 번역상의 진전 두 가지

5) Kurt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66); Kurt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8); Kurt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3rd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1975).

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훗날 1980년대에 모든 주요 성경 번역에서 중대해질 사안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첫 번째 진전은 성 배타적 언어의 문제, 특히 문법적 성이 성서 언어들 속에 이미 내재돼 있는 현실을 다루기 시작한 점이였다. <기쁜소식성경>이 키크던스 같은 번역이 아니라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 이미 <기쁜소식성경> 신약 4판(1976년)에서, 번역 곳곳에 ‘man/men’(남자/남자들 또는 사람/사람들) 대신 ‘person’(사람), ‘people’(사람들), ‘human’(인간), ‘someone’(어떤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누가복음 18:27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기쁜소식성경> 신약 3판은 다음과 같다. “남자들/사람들(men)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⁶⁾ 신약 4판의 표현은 아주 조금 바뀌었다. “남자/사람(man)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⁷⁾ 그러나 신약 5판(<기쁜소식성경> 2판, 1992년)은 다음과 같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⁸⁾ 그러나 이것은 개정이 있기 전 이런 변화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문제는 <기쁜소식성경> 2판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였다.

두 번째 진전은 반유대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사안에 대처하기 시작한 점이였다. 즉, (성서 문화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모르는) 현대의 독자들이 (특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몇몇 신약 본문을 반유대적으로 잘못 이해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유대인이 어떻게든 관련되었다는 듯) 오늘의 유대인들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말이다. <새미국성경> 2판 신약의 개정자들은 서문에서 이에 대한 염려를 표현했다. “오늘날 특히 민감한 문제는 언어에서의 차별에 관한 물음이다. 최근 신약에 반유대적 표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NAB², 1061). 현대의 독자들은 기원후 1세기 유대교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매우 해로운 오용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그러하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호이 이우다이오이(οἱ Ἰουδαῖοι)’, 즉 ‘(그) 유대인들’이라는 매우 폭넓고 모두를 포함하는 것 같은 범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독자들은 모든 유대 사람들(Judeans)이 (혹은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Jews]이) 어떻게든 일치단결하여 예수에 대해 공모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예수 시대의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그를 마주친 적이 없음에도) 내릴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예가 요한복음 11:8이다. 거기서 예수가 나사로가 죽어 누워 있는 유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자 놀란 제자들이 말한다. “랍비여, (그) 유

6) “What is impossible for men is possible for God.”

7) “What is impossible for man is possible for God.”

8) “What is humanly impossible is possible for God.”

대인들(the Jews)이 방금 전 당신을 돌로 치고자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다시 가신다는 겁니까?”(<개정표준역>).⁹⁾ <기쁜소식성경> 신약 3판은 이렇게 번역했다. “선생님 … 조금 전에 (그) 유대인들(the Jews)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되돌아가실 것을 계획하시는 겁니까?”¹⁰⁾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 4판은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선생님 … 조금 전에 거기 사람들(the people there)이 당신을 돌로 치고 싶어 했는데, 거기로 다시 가신다는 겁니까?”¹¹⁾ <기쁜소식성경> 2판은 이 마지막 독법을 유지했다. 이런 본문들 중 일부는 신약 1판에서 이미 다뤄진 바 있다. 예컨대, 요한복음 11:53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호이 이우다이오이(οἱ Ἰουδαῖοι)’, 즉 ‘(그)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쁜소식성경> 신약은 (1판부터 5판까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그날 이후로 유대 당국(the Jewish authorities)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¹²⁾ 이 예들은 이미 신약 4판(1976년)에서 이 사안에 관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5판(<기쁜소식성경> 2판, 1992년)에서 훨씬 더 전면적으로 다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쁜소식성경> 신약 본문은 여러 판들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6년 <기쁜소식성경> 구약 본문의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메이(H. G. May)의 1978년 서평 논문(review article)을 통해 확인되었다(출간된 지 2년밖에 안 된 때였다!). 메이는 시편 37편을 예로 들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히브리어 단어 ‘이쉬(אִישׁ)’, 즉 ‘남자/사람’이 시편 37편에 세 번밖에 안 나오는 반면, 영어 단어 ‘man’(남자/사람)은 <기쁜소식성경> 번역에 17번이나 나온다는 점이었다.¹³⁾ 메이의 입장에서 이것은 다음 사항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 준다. 곧, 성서 번역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히브리어의 문법적 남성형을 그대로 옮길 뿐 아니라 지나치게 확대하기까지 하여, 현대의 영어 독자들/청자들이 보기에 성서 본문들의 남성성을 과장하고, 그 본문들이 그려 주는 세계를 과장하고, 그 번역이 목적지로 삼는 청중의 남성성의 의의를 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메이 교수처럼, 완역판 <기쁜소식성경>이 1976년에 출간된 이래로 약 15년간, 많은 성서 독자들 또한 성 배타적 언어의 부정적인 영향 — 곧 고대 성서 언어들의(또한 영어의) 남성을 향한 내재적 편향성이 일부 성서 사용

9) “Rabbi, the Jews were but now seeking to stone you, and you are going there again?”

10) “Teacher … just a short time ago the Jews were planning to stone you; and are you planning to go back?”

11) “Teacher … just a short time ago the people there wanted to stone you; and are you going there again?”

12) “From that day on the Jewish authorities made plans to kill Jesus.”

13) H. G. May, “Good News for All People Everywhere”, *Interpretation* 32:2 (1978), 190.

자로 하여금 그 메시지의 대상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끼게 만든 방식 — 에 민감해졌다. 이것이 1980년대에 미국성서공회 번역 분과 위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쏟은 개정의 배경의 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1976년 출간 후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기쁜소식성경>의 독자들과 교회들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속한 다른 성서공회들이 미국성서공회에 편지를 써서 이 사안에 대해 그들이 걱정하는 바를 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전면적인 검토 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하도록 한 핵심 문제였다.

1986년 12월, <기쁜소식성경> 본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점점 더 인식되는 상황에 응답하여, 미국성서공회 이사회는 개정 과정에 착수할 것을 승인하였는데, 그 범위는 다음 두 가지 관심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1) 불필요할 정도로 영어 표현이 성 배타적인 구절들, (2) 주석적 관점에서든 문체적 관점에서든 번역이 문제가 있거나 세심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이 그것이었다.

<기쁜소식성경> 2판의 개정 과정

<기쁜소식성경> 2판의 개정은 전면적이지자 복잡했으며 국제적 협업을 통한 과정이었다. 미국성서공회 번역 위원들은 (제2정경/외경이 들어 있는 1979년판 <기쁜소식성경>을 포함하여) <기쁜소식성경>의 모든 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서, 각 절별로 필요한 곳마다 개정을 위한 제안을 했다. <기쁜소식성경>이 배포되고 사용된 전 세계의 다른 성서공회들에게도 요청을 보내어, 같은 작업을 그곳의 성서 번역 전문가들 및 성서학자들과 함께 해 달라고 하였다. <기쁜소식성경>은 출간된 후 급세 미국에서뿐 아니라 영어 사용자들이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가치 있게 여겨졌고, 다른 성서공회들에서도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개정은 반드시 공동 프로젝트여야 했다. 그 주된 목적은 성 배타적 언어를 다듬을 필요가 있는 구절들을 찾아내어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주석적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한 구절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전체 과정의 1단계의 주된 작업은 <기쁜소식성경> 본문을 협업으로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과 미국성서공회 및 다른 성서공회들의 학자들이 제안한 개정 사항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절별 검토 및 의견 제시라는 이 힘든 과정에 1년이 할당되었다. 과정을 복잡하고 번거롭게 만든 것은 이 일이 인터넷이 있기 전에 실행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국제 우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검토 작업이 끝나고 제안을 다 수집한 후에, 미국성서공회 번역 분과는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제안된 구절들의 주요 목록을 정리하여, 기존의 1976년 <기쁜소식성경> 본문을 한쪽 단에, 개정에 대한 제안을 두 번째 단에 제시했다. 최초의 주요 목록에는 두 범주가 있었다. 훨씬 더 큰(6,000절 이상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성 배타적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제안을 나열했고, 매우 작은 두 번째 부분은 주석적 제안과 관련되었다(아래를 보라). 문체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또한 개정판의 조판을 쉽게 하기 위하여, 대체하는 표현은 그 문체가 <기쁜소식성경> 본문과 일관되고 그 길이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고서 주요 목록이 정리된 것을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성서공회와 번역자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4단계 감별과 평가 과정의 첫 단계였다. 모든 성서 공회 및 작업에 참여하는 번역 전문가들이 주요 목록을 받은 후, 그 다음 작업은 모두가 그 목록을 살피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각 제안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이 목록은 최소 75%의 지지를 받는 제안들만 남김으로써 축소되었다. 이 단계에서 검토자들은 표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존 제안들에 대한 개정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었고, 그것들은 그 다음 단계에 포함되었다. 주요 목록은 이러한 검토와 평가, 그리고 지지/반대 표시의 단계를 세 번 더 거쳤고(모두 편지로), 이렇게 거르는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는 약 2,500개의 본문적 개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을 거칠 때 제안된 각각의 개정 사항은 단어 수와 문체 모두에 있어서 <기쁜소식성경>의 표현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잘 가공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개정들은 추후에 영국 영어와 호주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거쳤다. 1990년 9월 미국성서공회 번역 분과와 미국성서공회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개정들이 인쇄소로 넘겨졌고 <기쁜소식성경> 2판(구약, 신약, 제2정경/외경)의 본문이 마련되었다.

성 배타적 언어를 다듬은 개정

구어체 영어의 양식과 습관이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서 번역은 완성되어 출간되는 거의 그 순간부터 벌써 구식이 되기 시작한다. 본문이 고정된 상태로 있는 한, 예컨대 영어 성경 번역의 언어 용법은 일상 용법에서의 신속한 새 발전을 향한 구어체 영어의 경향성 때문에 금

세 구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구어체 영어에서 일어난 언어적 발전은 성 배타적인 단어와 어구에서 멀어지려는 쪽으로의 거의 ‘양자 도약’(quantum leap) 같은 큰 변화였다.

실로, 오늘날의 살아 있는 언어로서 영어의 변화하는 성질은 단어 ‘man/men’(남자/남자들 또는 사람/사람들)의 용법이 20세기 중반부터 어떻게 변했는지를 봄으로써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 이 현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사안을 다루고자 한 모든 주요 성경 번역의 움직임들을 통해 명확히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의 구어체 영어는 특히 지시하는 대명사(referent pronoun)나 문장에서 앞말을 받는 대명사(resumptive pronoun)와 관련하여 남성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는 쪽으로 신속히 조정을 가했다.¹⁴⁾ ‘his or her’(그 남자의 또는 그 여자의)나 ‘s/he’(그 여/남자) 같은 번거로운 화법들을 실험해 본 후, 구어체 영어는 ‘단수 they’(그들)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만약 누구든(anyone) 저와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그분은(they) 여기에 12시 전까지 오셔야 합니다”,¹⁵⁾ “누가 헤이즐을 죽였든 그는 그의(their) 자취를 잘 감췄다”¹⁶⁾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이 미국 영어 용법에서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는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표지가 있다. 2015년에 문법학자들이 ‘올해의 단어’로 ‘단수 they’를 선택하여 공표한 것이다.¹⁷⁾

마태복음 16:24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어는 삼인칭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자연스러웠고 청중에게도 적절했다. <개정표준역>(신약 2판, 1971년)은 여전히 매우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어떤 남자(man)든 내 뒤를 따르려거든, 그 남자로(him) 그 자신을(himself) 부인하도록 하고 그 남자의(his) 십자가를 갖고서 나를 따르도록 해라.”¹⁸⁾ 예수의 이 초청이 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구든, 누군가’라는 뜻의 그리스어 ‘티스(τις)’를 ‘man’(남자/사람)이 아니라 ‘anyone’(누구든)으로 번역했다. 즉, “누구든(anyone)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면, 그 남자는(he) 그 자신을(himself) 잊고 그 남자의(his)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¹⁹⁾ 이것은 조금만 나아간 것이었지만, <기쁜소식성

14) Roy H. Copperud, *American Usage and Styl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0.

15) “If anyone wants to consult me, they will need to be here before 12 noon.”

16) “Whoever killed Hazel covered their tracks well.”

17) <https://globalnews.ca/news/2446364/singular-they-named-2015s-word-of-the-year/>.

18) “If any man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19) “If anyone wants to come with me, he must forget himself,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경> 2판은 문장을 이인칭 양식으로 바꿈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인칭 양식은 오늘날 영어를 말하고 들을 때 더 자연스러운 양식이다. 곧, “너희 중 누구든(any of you)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면, 너는(you) 너 자신을(yourself) 잊고 너의(your)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²⁰⁾ 이와 비교하여, <새개정표준역>이 <개정표준역>을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바꿈으로써 개정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단, 이 방식을 쓸 경우 청자를 향한 개인적인 부름이라는 의미를 좀 잃을 위험성이 있다). “누구든(any) 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면, 그들로(they) 그들 자신을(themselves) 부인하도록 하고 그들의(their) 십자가를 갖고서 나를 따르도록 해라.”²¹⁾

다른 예로 시편 37편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남성형을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관점에서, 또한 특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단어 ‘man’(남자/사람)이 개정된 <기쁜소식성경> 2판 본문의 40절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남성 대명사(‘his’, ‘him’, ‘he’)를 사용하는 것(피하기 힘든 용법이다)도 조금 줄어들었다. 이 남성 대명사들은 <기쁜소식성경> 1976년판에 다해서 15번 나오지만, <기쁜소식성경> 2판에는 13번 나온다.

남성 대명사를 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이 아모스 5:8을 다루면서 ‘주님’(the LORD)을 받을 때 ‘Who’를 쓴 것이 그 예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Who), / 깊은 어둠을 새벽으로 바꾸시고 / 낮을 어둡게 하셔서 밤으로 만드시는 분(Who) / 바다의 물을 부르시는 분(Who) …”²²⁾ 반면, <기쁜소식성경> 2판은 각각의 경우 ‘주님’을 받을 때 ‘He’를 쓴다. 이사야 40:13하반에서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과 <기쁜소식성경> 2판은 모두 ‘주님’(the LORD)을 가리킬 때 보다 단조롭게 ‘him/his’를 사용하고, 이런 예는 이 외에도 많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남성 대명사를 줄이는 일이 미래의 성서 번역 개정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앞으로 <기쁜소식성경> 2판을 개정할 경우 이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른 성서 번역들도 마찬가지다.

<기쁜소식성경>의 초기 판들을 읽은 독자들은 미국성서공회에 남성을 향한 언어적 편향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을 전하면서, <기쁜소식성경> 본문

20) “If any of you want to come with me, you must forget yourself, carry your cross, and follow me.”

21) “If any want to be my followers, let them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22) “Who made the Pleiades and Orion, / Who turns deep darkness into dawn / And darkens day into night, / Who summons the waters of the sea …”

을 개정하게 된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리고 <기쁜소식성경> 2판인 1992년판 서문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1992년 <기쁜소식성경> 2판 서문은 이렇게 진술한다. 개정을 준비한 과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말하면”, “특정 구절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언급하는 곳에서 개정은, 배타적으로 남성 지향적이지는 않은 언어를 목표로 삼는다. 동시에, 성서 시대의 고대 가부장적 문화라는 역사적 상황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GNB², 서문, iv).

주석적 개정과 문체적 개정

두 번째, 덜 광범위한 개정의 범주는, 주석적 관점에서 혹은 몇몇 경우는 문체적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된 구절들과 관련되었다. 이것들은 다해서 30개 정도가 있었다. 몇 개의 예가 이 범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신약의 한 예는 잘 알려진 본문적 난제인 빌립보서 2:6이다.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에서 이 절은 바울의 선재적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일해지시려고 힘으로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시고”(대안 번역으로서 각주에는, ‘동일해지시려고, 또는 동일하게 남으시려고’).²³⁾ 반면 <기쁜소식성경> 2판은 본문과 각주를 바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남으시려고 힘으로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시고”(이전의 독법을 각주로 내려서, ‘동일하게 남으시려고, 또는 동일해지시려고’).²⁴⁾ 특히 삼위일체 신학자들이 <기쁜소식성경>의 처음 독법에 불만이었다. 이 2행 시구의 첫 행은 그리스도에 관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둘째 행은 그 다음 절(2:7)에서 그 신적 ‘모습’의 ‘케노시스(*kenōsis*, ‘자기 비움’)'로, 또한 ‘종의 모습’ 취하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기쁜소식성경>의 처음 표현은 바울의 선재적 기독교론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였다. 바울의 기독교론은 2행 시구의 첫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는 다니엘 8:14이다. 이 구절은 <새개정표준역>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2,300 저녁과 아침 동안. 그런 후 성소가 적절한 상태로 회복 될 것이다.”²⁵⁾ 전통적으로 2,300 저녁과 아침은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를

23) “but he did not think that by force he should try to become equal with God.” 번역 각주: ‘become, or remain’.

24) “but he did not think that by force he should try to remain equal with God.” 번역 각주: ‘remain, or become’.

25) “For two thousand three hundred evenings and mornings; then the sanctuary shall be restored

바치는 기간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된 때부터 다시 봉헌된 때까지, 제사를 못 바치는 기간인 1,150일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1976년판 <기쁜소식성경> 구약 본문은 이것을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상실되지 않게 “1,150일”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 번역은 혼동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다. 개정된 1992년 <기쁜소식성경> 2판 본문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2,300 저녁과 아침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제사를 바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후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²⁶⁾ 각주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다.

세 번째 예는 이른바 신약의 ‘피’ 본문 11곳(행 20:28; 롬 3:25; 5:9; 엡 1:7; 2:13; 골 1:20; 히 10:19; 13:20; 벧전 1:19; 계 1:5; 5:9)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해 보수적 기독교 그룹들이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몇몇 신약 구절에서 그리스어 단어 ‘하이마(αἷμα)’, 즉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by the blood of Christ)라는 표현에서 대유적으로 사용되어, (일종의 대유적 약칭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by the death of Christ, 4판: ‘희생적 죽음’[sacrificial death])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기쁜소식성경> 신약 1판에서 이 어구가 주로 번역된 방식이 후자의 표현이었고, 이는 3판까지 이어졌다. 대유법의 원리를 따라 어떤 것의 작은 측면이 보다 큰 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였고, 따라서 바로 이 신약 본문들에서 신약 저자들이 예수의 ‘피’의 효력에 대한 언급들을 대유적으로 사용하여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혹은 자기희생을 나타낸 것이다.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번역자인 브래처(Robert Bratcher)가 살핀 바에 따르면,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에 대한 가장 심하고 가장 널리 퍼진 공격들의 초점이 이 대유적 본문 11곳에서 그리스어 ‘하이마(αἷμα)’를 ‘죽음’(death) 혹은 ‘희생적 죽음’(sacrificial death)으로 번역한 것과 관련되었다. <기쁜소식성경> 신약 책들이 불태워졌고, 증오에 찬 소책자들이 비난을 가했고, 번역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가해졌다.²⁷⁾ 브래처는 또한, <기쁜소식성경> 신약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어를 모국어로 배웠든 나중에 배웠든,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모든 번역처럼 이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고, 충실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번역 본

to its rightful state.”

26) “It will continue for 2,300 evenings and mornings, during which sacrifices will not be offered. Then the Temple will be restored.”

27) Harry M. Orlinsky and Robert G. Bratcher,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198.

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와 원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 간의 거리임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덧붙였다.²⁸⁾ 독자로 하여금 뜻을 명확히 이해하게 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쁜소식성경>이 이 대유적 ‘피’ 본문들을 위와 같이 번역한 것은 혁신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몇몇 그룹에서 이것은 성서에서 ‘피를 빼내는’ 행위로 여겨졌다.

미국성서공회와 전 세계의 다른 성서공회들은 이 본문들에 관한 우려와 비판을 접수했다. 그 중 하나는 <기쁜소식성경> 신약을 쓰고 싶어 하는 개인이나 교회들에게 보수적인 비평가들이 한 말인데, 곧 “저들이 성경에서 피를 빼냈으므로” 이 성서 번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서 저자들이 대유법의 원리를 사용한 것을 문자주의 그룹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개정 과정에서 이 본문들 중 일부는 표현을 ‘피’로 조정했지만, 같은 페이지에 <기쁜소식성경>의 초기 독법들을 각주로 항상 병기하여서 이들 역시 똑같이 가능한 번역으로서 ‘피’의 대유적 용법이 본문 안에서 뜻하는 의미를 나타냈다.

한 가지 예가 로마서 5:9이다.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이 “그의 [4판: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²⁹⁾라고 번역한 것을 <기쁜소식성경> 2판은 “그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각주: 또는 ‘그의 희생적 죽음으로’)³⁰⁾로 개정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7에서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³¹⁾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기쁜소식성경> 2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각주: 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³²⁾로 번역했다. 다른 ‘피’ 본문들의 경우는 <기쁜소식성경> 2판은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대유적으로 쓰인 단어 ‘하이마(αἷμα)’를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가능한 대안임을 나타냈는데, 이 번역이 성서 저자들이 대유적으로 사용한 ‘피’가 가리키는 뜻 —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죽음 — 을 더없이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요한계시록 5:9에서 <기쁜소식성경> 신약의 초기 판들은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은 남자들/사람들(men)을 각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인종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³³⁾라

28) Ibid., 199.

29) “By his [4판: sacrificial] death we are now put right with God.”

30) “By his blood we are now put right with God.” 번역 각주: or, By his sacrificial death.

31) “by the death of Christ we are set free.”

32) “by the blood of Christ we are set free.” 번역 각주: or by the sacrificial death [of Christ].

33) “and by your death you bought men for God from every tribe, language, nation and race.”

고 번역했는데, <기쁜소식성경> 2판은 “그리고 당신의 희생적 죽음으로 당신은 각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인종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³⁴⁾라고 말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19에서도 <기쁜소식성경> 2판은 이전의 대유적 번역을 유지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이었다”(그리스어: ‘티미오 하이마티 ... 크리스투[τιμίω αἵματι ... Χριστού]’).³⁵⁾ 요한1서 1:7의 초기 판들의 독법, “그리고 예수의 피가”는 <기쁜소식성경> 2판에서 유지되었다. 히브리서 10:19에서 <기쁜소식성경> 2판은 이전의 대유적 표현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로 번역했다.

<기쁜소식성경> 2판과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

1960년대 말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번역 담당 총무 나이다(Eugene A. Nida)의 지도하에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로 불릴 작업을 맡을 학술 위원회를 모집하고 임명했다. 성서 번역자들이 너무도 자주 마주하는 히브리어 성서 속 본문적 난제들은 번역에 앞서 다양한 이독(variant reading)들을 분류 및 평가해야 하는 도전을 번역자들에게 안겨 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런 본문적 난제 수천 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했다. 1967년 나이다는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지명된 이들은 모두 히브리어 성서의 경험 많은 본문학자였고 모두 본문 비평에 정통했으며 사해 두루마리 본문들에도 익숙했다.³⁶⁾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 위원회는 1969년에 처음 모여서 그들의 작업을 계획하고 정리했고, 그 후 11년간 매해 여름 4주간씩 만났다. 어려운 본문들을 본문 비평적으로 평가할 때에 그들이 사용한 과학적 접근법은 5권 짜리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 각 권의 전문에 영어와 불어로 명시되었다(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뒤따른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임명한 히브리어 성서학자들이 팀을 이뤄 참여한 10년간의 작업은 스위스 학자 바르텔미(Dominique Barthélemy)의 매우 효율적인 지도력하에서 진행되었다.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다

34) “and by your sacrificial death you bought for God people from every tribe, language, nation and race.”

35) “it was the costly sacrifice of Christ.”

36) H. P. Rüger,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 *UBS Bulletin* 108/109 (1977), 16-19.

른 학자들로는 휠스트(A. R. Hulst, 네덜란드), 로핑크(Norbert Lohfink, 독일), 맥하디(W. D. McHardy, 스코틀랜드), 뤼거(H. P. Rüger, 독일), 샌더스(James A. Sanders, 미국)가 있었고, 쉹커(Adrian Schenker, 스위스)와 톰프슨(John A. Thompson, 미국)이 위원회의 총무로서 일했다. 이들의 작업은 히브리어 성서 속의 5,000개가 훨씬 넘는 본문적 난제를 분석하는 일과 이 본문들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권고하는 일을 포함했다. 기초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은 5권짜리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 예비 및 중간 보고서>(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³⁷⁾를 1979년과 1980년에 걸쳐 출간하여, 그들이 발견한 것을 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그들의 발견은 나중에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출간할 때 세심하게 편집되고 개정되었다.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서 각 결정에 관한 논의는 간략한 예비 보고서와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다. 이 최종 보고서는 본래 바르텔미가 편집하여 출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최종 보고서의 첫 세 권이 1982년과 1992년 사이에 완성되어 불어로 출간되었다.³⁸⁾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르텔미가 중간에 세상을 떠났고 작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다가 쉹커가 책임을 이어받으면서 편집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4권이 2005년에, 5권이 2016년에 나왔다.³⁹⁾ 최종 보고서의 오경 부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온다면 언제 나올지 아직 불분명하다.

예비 보고서는 1980년대 <기쁜소식성경> 2판이 계획될 당시에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의 위임 사항은 이 모든 본문적 난제에 대한 상세하고 노동 집약적인 검토 같은 과정 — 필요한 것이었겠지만 — 을 지시하지

37) Dominique Barthélemy, ed.,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Pentateuch*, vol. 1 (New York: UBS, 1973, 1979); *Historical Books*, vol. 2 (New York: UBS, 1979); *Poetical Books*, vol. 3 (New York: UBS, 1979); *Prophetical Books I*, vol. 4 (New York: UBS, 1979); *Prophetical Books II*, vol. 5 (New York: UBS, 1980).

38) Dominique Barthélemy, ed.,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Josue, Juges, Ruth, Samuel, Rois, Chronique, Esdras, Nehemie, Esther*, vol. 1, OBO 50:1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2); *Isaie, Jeremie, Lamentations*, vol. 2, OBO 50:2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6); *Ezechiel, Daniel, et les 12 Prophetes*, vol. 3, OBO 50:3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2).

39) Stephen D. Ryan and Adrian Schenker, eds.,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Psaumes*, vol. 4, OBO 50:4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5); Clemens Locher, Stephen D. Ryan, and Adrian Schenker, eds.,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Job, Proverbes, Qohelet, et Cantique de Cantiques*, vol. 5, OBO 50:5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16).

않았고, 미국성서공회 번역 위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기쁜소식성경> 본문을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권고에 비추어 검토하는 일은 당시 미국성서공회 번역 본과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그것은 미래를 위해, 또 어찌면 있을지 모르는 <기쁜소식성경> 3판을 위해, 가능한 (그리고 유익할) 프로젝트로 남아 있다.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가 한 권을 제외하고 다 출간된 2016년 이후로 이것은 특히 더 그러하다.⁴⁰⁾

부록: 1979년 <기쁜소식성경> 제2정경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에서 비롯된 에큐메니즘적 새 개방성의 결과로, 또 성서와 성서학과 성서 번역과 교구 내 평신도들의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열정적으로 갱신된 결과로, <기쁜소식성경>의 판들(신약: 1966년; 전서: 1976년)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전체, 1980년대에 미국 내 로마 가톨릭 교회들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구약의 원(原)정경에 더하여 제2정경 책들을 포함한 <기쁜소식성경> 판들을 갖고 싶어 할 것임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유럽의 성서공회들은 2차 바티칸이 격려한 새 방향들을 느끼자, 재빨리 움직여서 제2정경 책들을 포함하는 성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게 되었다. 2차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전인 1964년에 이미,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지도자들과 세계의 다양한 교회들에서 온 대표들이 네덜란드 드리베르헨(Driebergen)에서 모여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들에서 쓸 수 있도록 제2정경을 포함하는 성서를 출간 및 배포할 것을 권고하는 제안을 논의했다. 드리베르헨 권고는 이랬다. “교회들이 원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성서공회들은 흔히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⁴¹⁾ 이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개혁 전통의 유산을 가진 성서공회들이 제2정경 책들의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도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인간의 다른 문서보다 더 권위 있지 않음을 선언했고(*nec aliter quam*

40) 이 글은 2017년 성서학회 연례 회의 중 미국성서공회 나이다성서학연구소가 조직한 세션에서 <기쁜소식성경> 50돌을 축하하기 위해 발표한 원고를 다듬은 것이다.

41) Laton E. Holmgren, “Evangelicals and the Bible Cause: A Presentation to the ABS Senior Officers Council” (Unpublished Internal ABS Document, 1970. 5. 1.), 6.

alia humana scripta), 이는 성서 안이건 공적 예배에서건 그 책들의 위치에 관한 개혁 전통 내에서의 모든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다른 곳의 성서공회들의 다수는 그 시각을 공유하지 않았고, 로마 가톨릭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서를 만듦으로써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열망했다. 그리하여 드리베르헨 권고가 승인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총무인 픽(Ulrich Fick)이 1977년 언급한 바에 따르면, 앵글로색슨 성서공회들과 그들의 지원자/후원자들(특히 영국및외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와 미국성서공회)은 제2정경 책들에 관해 개혁 전통의 입장에 크게 영향 받은 반면, 다른 성서공회들(예컨대, 루터파 국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성서의 간종파적(interconfessional) 판에 이 책들을 포함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68년 한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중추적인 순간이 오게 되었다. 바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기독교인 일치 증진을 위한 바티칸 사무국’(Vatican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이 함께 준비하고 합의한 “성서 번역에 있어 간종파적 협업을 위한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Interconfessional Cooperation in Translating the Bible)이었다. 여기서의 (제2정경 책들을 전통적인 가톨릭 순서를 따라 책들 사이사이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서공회들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적인 타협점은 “특정 성서공회가 출간하고 로마 가톨릭 당국의 임프리마투르(imprimatur)⁴³⁾를 받은 성서 판들에서, 제2정경 본문들은 신약 앞에 따로 묶어서 포함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이었다.⁴⁴⁾ 이것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게 분수령이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성서를 번역하고 출간하고 배포하는 그들의 작업에서 온전히 간종파적이고자 한 그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합의가 있는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간종파적 성서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모두 로마 가톨릭 번역자들과 개신교 번역자들을 아울렀고, 몇몇 경우는 정교회 번역 전문가들도 포함했다. 1987년까지 총 161개의 간종파적 성서와 신약이 1968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바티칸 합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출간되었고,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160건이 더 진행 중이었다.⁴⁵⁾

42) Wilhelm H. Neuser,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Old Testament Apocrypha”, Paul Ellingworth, trans., Siegfried Meurer, ed., *The Apocrypha in Ecumenical Perspective* (Reading: UBS, 1991), 107.

43) [역자 주] 신앙에 관한 인쇄물에 주교가 내려 주는 출판 허가.

44) Ulrich Fick, “The Bible Societies, the Churches, and the Deuterocanonical Books”, *UBS Bulletin* 108/109 (1977), 32.

45) UBS and Vatican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Background Paper on Revised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운영 위원회는 바티칸과의 이 혁신적인 합의를 1969년 에든버러 회의에서 계속 논의했다. 그들은 앵글로색슨 성서공회들과 그들의 후원자들 중에 의구심이 있음을 인지했고, 특히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이 이 성서공회들에서 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제2정경 부분을 포함하는 성서를 번역하고 출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간종파적 성서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후 ‘에든버러 방식’[Edinburgh Formula]으로 알려졌다)이었다.⁴⁶⁾ 이것 역시 논란이 있는 타협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단연코 요청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 제2정경을 포함하는 성서들에 반대하는 후원자들에 대해 염려하던 성서공회들이 그들의 후원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즉, 후원자들의 기금이 제2정경을 포함하는 성서들을 제작하는 일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⁷⁾ 얼마 뒤 1972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정교회 당국의 요청과 지원이 있을 때 정교회 정경들을 따르는 성서 번역 프로젝트들에 착수할 것을 승인했다.⁴⁸⁾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세계 가톨릭 성서 사도직 연합(World Catholic Federation for the Biblical Apostolate)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연석 회의인 성서 프로젝트 협의회(Bible Projects Consultation)가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총서기인 픽은 이 협의회에 제출하는 1977년 보고서에서 제2정경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성서공회들은 그들이 그들의 작업을 시작한 원칙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 성서공회들은 교회가 아니기에, 성서에 관한 교리적 의견을 수립하기를 원치 않는다. 성서공회들은 그 자신의 영역에서, 이 교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성서로써, 교회들을 섬긴다. ... 요컨대, 성서의 정경을 규정하는 것은 성서공회들이 아니라 교회들이 분명하다. 전자의 태도

‘Guidelines for Interconfessional Cooperation in Translating the Bible’”, Presented Nov. 16, 1987, to the press and participants in the signing of the revised document (Stuttgart: UBS, 1988), 1-14.

46) Ulrick Fick, “The Bible Societies”, 33.

47) John Fea, *The Bible Cause: A History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84.

48) Ulrick Fick, “The Bible Societies”, 34.

는 과거에도 오늘날도 실용적이다. 교리적이지 않다.⁴⁹⁾

“협업을 위한 지침”은 홍콩에서 열린 1978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실행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 이후로 제2정경 책들을 전통적인 가톨릭 방식을 따라 책들 사이에 포함하는 로마 가톨릭판들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었다. 각 나라의 성서공회야말로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성서를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⁵⁰⁾

미국성서공회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바티칸 사이에서 합의된 입장과 같은 입장을 갖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이는 제2정경 책들 및 로마 가톨릭교도들과의 협력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성서공회의 일부 이사와들과 지원자들이 이를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는데, 미국성서공회가 간종파적 성서 번역 작업에 개방적이 되도록 이끈 핵심 요소는 미국성서공회의 총무인 홈그렌(Laton Holmgren)이 1970년 5월 미국성서공회 총이사회에서 발표한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홈그렌은 로마 가톨릭과의 협업이 성서공회 운동이 역사적으로 지켜 온 원칙과 가치에 전적으로 일치함을 결정적으로 보여 주었다. 홈그렌은 모든 교회들 — 복음주의, 개신교, 가톨릭 — 이 모든 곳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자 애쓴다는 점과 성서공회 운동의 임무가 처음부터 초교파적이었으며(“전 세계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 교파 및 교리적 차이에 대해 불편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⁵¹⁾

미국성서공회는 1974년 <기쁜소식성경>의 간종파적 판들을 위하여 제2정경 책들을 번역하는 데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쁜소식성경> 구약을 번역했던 이들로부터 번역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작업은 <기쁜소식성경> 구/신약판이 1976년에 출간된 직후 시작되었다. 제2정경/외경 책들의 번역자들은 피콕(Heber F. Peacock, 책임 번역자), 블러드(Roger A. Bullard), 뉴먼(Barclay M. Newman)을 포함했다.⁵²⁾ 번역 팀은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고, 세심한 검토 과정이 있는 후 제2정경/외경 책들을 위한 <기쁜소식성경> 본문을 출간할 준비가 1979년에 끝났다. 임프리마투르가 확보되었는데, 1979년판은 코네티컷 하트퍼드의 휠런 대주교(the Most Rev. John F. Whealon)가, (제2정경/외경을 포함한) <기쁜소식성경> 1992년 개정판은 메

49) Ibid., 35.

50) Ibid., 36.

51) Laton E. Holmgren, “Evangelicals and the Bible Cause”, 6.

52) Harry M. Orlinsky and Robert G. Bratcher,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202.

릴랜드 볼티모어의 킬러 대주교(the Most Rev. William H. Keeler)가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였다. 둘 모두 미국 전역의 로마 가톨릭 교구들에서 <기쁜소식성경>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널리 사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⁵³⁾ 가톨릭이 <기쁜소식성경>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알려 주는 또 다른 초기의 표지는, 1969년 보스턴의 쿠싱 추기경(Richard Cardinal Cushing)이 <기쁜소식성경> 신약 2판에 임프리마투르를 허락하면서 본문에서 단 한 곳도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다.⁵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기독교인 일치 증진을 위한 바티칸 사무국’이 다 다른 합의의 조건에 따라, 제2정경/외경 책들은 <기쁜소식성경> 속 구약과 신약 사이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첫 부분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가 정경으로 인정한 제2정경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침들이 요구했듯, 그리스어 에스더기(에스테르기) 본문 전체도 이곳에 번역되었고, 에스더기의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6개의 추가 본문도 A장에서 F장까지 이름이 붙여져서 본래 자리에 삽입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몇몇 추가적인 책들’(Some Additional Books)이라는 표제가 붙었고, 에스드라1서, 에스드라2서, 므낫세의 기도를 포함했다.

<주제어>(Keywords)

개정, 성서 번역, 미국성서공회, 기쁜소식성경.

revision, Bible translation, American Bible Society, Good News Bible.

(투고 일자: 2020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20일)

53) John Fea, *The Bible Cause*, 283.

54) Harry M. Orlinsky and Robert G. Bratcher,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198.

<참고문헌>(References)

- Aland, Kurt,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66.
- Aland, Kurt,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8.
- Aland, Kurt,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3rd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1975.
- Barthélemy, Dominique, ed.,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Pentateuch*, vol. 1, New York: UBS, 1973, 1979.
- Barthélemy, Dominique, ed.,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Historical Books*, vol. 2, New York: UBS, 1979.
- Barthélemy, Dominique, ed.,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Poetical Books*, vol. 3, New York: UBS, 1979.
- Barthélemy, Dominique, ed.,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Prophetical Books I*, vol. 4, New York: UBS, 1979.
- Barthélemy, Dominique, ed.,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Prophetical Books II*, vol. 5, New York: UBS, 1980.
- Barthélemy, Dominique, ed.,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 CTAT): Josue, Juges, Ruth, Samuel, Rois, Chronique, Esdras, Nehemie, Esther*, vol. 1, OBO 50:1,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2.
- Barthélemy, Dominique, ed., *CTAT: Isaie, Jeremie, Lamentations*, vol. 2, OBO 50:2,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6.
- Barthélemy, Dominique, ed., *CTAT: Ezechiel, Daniel, et les 12 Prophetes*, vol. 3, OBO 50:3,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2.
- Barthélemy, Dominique, ed.,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CTAT 1, 2, 3권의 서문들의 영어 번역.]
- Copperud, Roy H., *American Usage and Styl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0.
- Dobson, James, "Don't Give In to Feminist Pressure to Re-write the Scriptures", *World* 12:7 (1997), 1.

- Fea, John, *The Bible Cause: A History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Fick, Ulrich, “The Bible Societies, the Churches, and the Deuterocanonical Books”, *UBS Bulletin* 108/109 (1977), 28-36.
- Holmgren, Laton E., “Evangelicals and the Bible Cause: A Presentation to the ABS Senior Officers Council” (Unpublished Internal ABS Document, 1970.5.1.), 1-7.
- International Bible Society, “Top-selling Bible to Be Issued in Gender-Accurate Version”, *IBS Web-Bulletin* (2002. 1. 28.), 1-2.
- LeBlanc, Doug, “Hands Off My NIV”, *Christianity Today* 41:7 (1997), 52-53, 55.
- Locher, Clemens, Ryan, Stephen D., and Schenker, Adrian, eds., *CTAT: Job, Proverbs, Qohelet, et Cantique de Cantiques*, vol. 5, OBO 50:5,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16.
- May, H. G., “Good News for All People Everywhere”, *Interpretation* 32:2 (1978), 187-190.
- Neuser, Wilhelm H.,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Old Testament Apocrypha”, Paul Ellingworth, trans., Siegfried Meurer, ed., *The Apocrypha in Ecumenical Perspective*, Reading: UBS, 1991, 88-115.
- Olasky, Susan, “Bailing Out of the Stealth Bible”, *World* 12:10 (1997), 1-7.
- Orlinsky, Harry M., and Bratcher, Robert G.,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nd the North American Contribution*, Atlanta: Scholars Press, 1991.
- Rüger, H. P.,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 *UBS Bulletin* 108/109 (1977), 16-19.
- Ryan, Stephen D., and Schenker, Adrian, eds., *CTAT: Psaumes*, vol. 4, OBO 50:4,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5.
- UBS and Vatican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Background Paper on Revised ‘Guidelines for Interconfessional Cooperation in Translating the Bible’”, Presented Nov. 16, 1987, to the press and participants in the signing of the revised document, Stuttgart: UBS, 1988.

<약자>

ABS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성서공회
CTAT	<i>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i>
GNB	Good News Bible, <기쁜소식성경>
GNB ²	Good News Bible, 2nd ed., <기쁜소식성경> 2판
IBS	International Bible Society, 국제성서공회
NAB ²	New American Bible, 2nd ed., <새미국성경> 2판
NJB	The New Jerusalem Bible, <새 예루살렘성경>
NJPS	Th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Translation (Tanakh), <새유대교출판협회번역>(타낙)
NLT	The New Living Translation, <새생명번역>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새개정표준역>
REB	The Revised English Bible, <개정영어성경>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정표준역>
TNIV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오늘의새국제역>
UBS	United Bible Societie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초록>

<기쁜소식성경>(Good News Bible)의 1992년 개정과 그 배경

이 글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성서 출판사들이 그들의 번역을 개정하는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보다 폭넓은 배경을 살핀다. 구어체 영어에서 일어난 신속한 변화로 주요 성경 번역들의 남성 위주의 영어는 독자들에게 구식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기쁜소식성경> 신약은 1966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구약은 1976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성서공회는 개정을 고려하고 있었다. 개정은 전면적이지자 협업을 통한 과정이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성서공회가 참여하였다. 6,000개 이상의 개정이 제안되고 검토되었는데, 이 중 약 2,500개가 합의에 이르렀다. 대다수는 성 배타적 언어와 관련되었고, 소수는 주석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가 거의 6,000개에 이르는 본문적 난제에 관해 권고한 내용이 1979년까지 예비적 형태로 출간되었지만, <기쁜소식성경>의 개정 과정에는 그 자료가 포함되지 못했다. 부록은 제2정경 책들을 1979년에 추가한 것에 관해 논의한다.